

7월 친환경농산물 '화순 유기농 복숭아' 선정



노상현 '풀잎농원' 대표

노상현 '풀잎농원' 대표, 천연농자재 사용 친환경 22년 실천
비타민·미네랄·항산화제 풍부...소화 잘 되고 면역력 높여

전남도는 화순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복숭아를 7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 복숭아는 육질이 많고 과육이 달콤해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이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해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을 높인다. 더운 날씨에 피로 해소

와 식욕 개선에도 도움이 돼 인기가 많다. 또한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함량이 높아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과수는 유기농 재배가 어려운데 복숭아는 특히 더 어렵다. 하지만 화순 능주군 백

암리에 위치한 '풀잎농원' 노상현(64) 대표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천연농자재를 만들어 재배한다. 녹비작물 등을 이용해 땅심을 키우는 '초생재배'로 토양의 수분과 영양분을 유지해 비옥한 토양을 만든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직접 재배한 지리공과 백두옹, 은행 등 추출액을 황도유황과 혼합해 뿌려 천연농자재로 일품 복숭아를 생산한다. 노상현 농가는 2001년부터 친환경 재

배를 시작해 2015년 유기 인증을 받아 22년 동안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유기농 복숭아 재배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전남도 유기농 명인' 제24호로 지정됐다. 수확 시기가 짧아 여름 한 철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복숭아는 6월 중순부터 시작해 8월 중순까지 수확한다. 누구나 안심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유기농 복숭아는 일반 복숭아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올해 유기농 복숭아 생산 예정량은 13t이다. 쇼퍼몰 등 온라인 판매와 고정 소비자 입맛을 겨냥한 직거래 등을 통해 1.8kg(포장 규격) 당 3만5천원에 판매된다. 황도, 백도, 천도 등 3개 품종이 생산된다. 유덕규 친환경농업과장은 "과수 분야 유기농업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 선호도에 맞춰 친환경 농가가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도록 지원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고소득 수산자원 주꾸미 자원 조성 박차

전남해양수산과학원, 4개 시·군 20만마리 방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3일 "자체 생산한 어린 주꾸미 종자 20만마리를 4개 시·군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주꾸미는 전남 해역에서 성숙한 어미를 확보해 자원 조성연구소 인공 산란장에서 한 달여 동안 부화, 성장시킨 종자다. 우리나라 주꾸미 생산량은 2023년 기준 2천204t이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 생산량은 383t으로 전국의 약 17%를 차지한다. 가격은 1kg 13마리 기준 약 5~6만원

으로 전남 연근해 어업인의 주요 소득 품종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13년부터 12년간 289만마리의 종자를 지속 방류해 주꾸미 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주꾸미는 지역특화 소득 품종으로 방류 후 단기간에 자원 회복과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며 "어업인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방류 품종과 방류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순천농협 '협동조합연구회' 발대

소통 장 마련 워크숍 개최

순천농협은 지난 2일 농협대학교 다산관에서 '협동조합연구회'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순천농협 비상임이사인 장세근 연구회회장을 비롯해 연구회위원, 그리고 순천농협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조직 구성 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협동조합 정

체성 회복 및 협동문화 확산에 힘쓰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협동조합연구회 회원들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남기포 농협대학교 교수의 '농협경영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최남후 순천농협 조합장은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함께 의견을 나누며 농민직능단체 및 농민조합원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부는 3일 대강당에서 디지털금융 확대를 위한 광주 상호금융 '디지털리더 111' 발대식 가졌다

광주농협, 금융 확대 '디지털리더 111' 출범

관내 농협 대상 디지털금융 인재육성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부는 3일 "대강당에서 디지털금융 확대를 위한 광주 상호금융 '디지털리더 111'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디지털리더 111'은 광주 관내 지역농협 전 지점 111개소를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전담인력 선발 및 육성을 통해 디지털금융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디지털 소외계층이 없는 행복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리더 111' 위촉

직원들은 디지털금융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을 통해 다 금융권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비교·분석과 함께 농협의 대표적인 금융플랫폼인 NH로뱅크 및 마이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개진하는 등 광주 농협 상호금융 디지털리더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금융사기대응팀으

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완급에 대한 사례 교육을 통해 디지털금융리더로서 고객 자산보호에 앞장서서 농협 상호금융을 선도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현호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은 "디지털금융은 농협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필수 핵심사업이다"며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방향성에 부합하는 디지털금융 인재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왕우렁이 피해 방지 1억4천만원 긴급 투입

도, 피해 발생 최소화 위해 유기농업자재 등 지원

전남도는 3일 "예비비 1억4천만원을 긴급 투입해 지난 겨울 따뜻한 기온과 잦은 비 등의 영향으로 월동 우렁이 피해가 발생한 친환경 벼 등 재배 농가에 왕우렁이 방제를 위한 유기농업자재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왕우렁이 피해 발생 친환경 논과 일반 논 벼 재배 농가다. 사업량은 1천864ha로 총사업비는 4억6천6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이

다. 왕우렁이 피해 농가 중 친환경농가는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일반농가에는 일반 방제 약제를 지원한다. 왕우렁이 농법은 대표적인 친환경농법 중의 하나다. 이양 후 5일 또는 썩레질 후 7일 이내 10a당 1.2kg 이내 왕우렁이를 투입하면 98%는 잡초 제거 효과가 있다. 또 친환경 벼 재배 농가의 노동력·경

영비 등이 감소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왕우렁이 활용도 중요하지만 하천 등으로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7월 한 달간 '왕우렁이 일제 수거 기간'으로 지정하고 농경지와 용·배수로 주변의 우렁이알과 벼 생육초기 논 잡초 제거에 사용된 왕우렁이를 집중 수거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